

이젠 전라도 사람 은희·한희민·손창국·솔츠가 말하는 전라도



은희 한희민 손창국 솔츠

돈보다 사람이 귀한 곳, 전라도가 좋다

전라도는 예술혼이 살아 숨쉬다 하여 예향(藝鄕), 너넨한 인심과 음식이 으뜸이라 해서 미향(味鄕)으로 불린다. 또 국가가 위기상황에 처할 때마다 의연히 일어나 의향(義鄕)이라고도 일컬어진다. 이제는 '문화수도'라고도 한다.

우리가 전라도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워 하는 이유들이다.

하지만 다른 지역 출신으로 전라도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 낯은 여생을 이곳에서 보내기로 작심한 사람들, 그들이 전라도를 좋아하는 이유는 달랐다. <관련기사 12·13면>

전라도에 정착한 외지인들은 투박하지만 꾸밈없는 삶, 손해볼 줄 알면서도 이익보다 인정에 끌리는 고집스런 품성, 돈과 조직의 논리에 앞서 인간관계가 우선되는 공동체문화를 한결같이 '전라도의 매력'으로 꼽았다. 인간의 본성에 충실한 삶과 공동체의 모습이 남다른 매력으로 비추어질지 우리는 미처 알지 못했다.

설을 앞두고 광주일보 기자들이 만난 사람들, 타지역 출신이지만 전라도를 좋아하고 아끼는 사람들은 우리가 잊고 있었던 아니 잊으려 애썼던 경험과 기억들에서 되레

고향을 느끼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들이 전라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들어왔다. 전라도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우리보다 더 전라도를 아끼는 이들의 전라도 사랑 타령에 귀를 기울여왔다.

제주 출신 '꽃반지 끼고'의 가수 은희씨, 충북 출신 왕년의 프로야구 스타 한희민씨, 서울 출신 전남대 손창국 교수, 독일인인 조선대 안톤 솔츠 교수.

이들에게 전라도는 '아날로그'이고, 만만한(?) 친구였다.

모든 것이 빛의 속도로 재편되는 '디지털

시대'. 그러나 전라도는 아직도 한박자 느리고, 어딘가 어설픈 '아날로그'다. 대세의 주류가 아닐지 몰라도 어느 누구와도 어울리고 함께하는 인정(人情)이 흐르는 곳이다.

낙후로 치부됐던 더딘 현대화, 미처 해결되지 못한 공동체 사회가 오히려 새로운 경쟁력인 셈이다. 빠르지 못해 답답하고, 시골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느림'이 미학과 향유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건강한 삶의 질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계적 흐름이 이미 전라도 땅 곳곳에 깔려있다.

컴퓨터와 인터넷이라는 제한된 도구와 수

단만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사랑방'과 같이 누구나 모일 수 있는 열린 공간이 있다는 사실도 삶의 활력소다. 광주 예술의 거리든 구시청 사거리든, 시골 논두렁이든 나가면 술잔에 모두가 친구가 되는 여유가 있음이다.

예향과 의향이라는 두 단어는 초면인 외지인들에게 괴팍스러움과 까탈로 다가온다. 하지만 전라도에 살아본 이들은 누구나 전라도를 의외로 까다롭지 않은 '해불 만'한 만만한 상대로 여긴다. 예술이 있는 듯 하면서도 없는 것 같고, 음식이 있는 듯 하면서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편안함이 주

녹 든 마음을 사라지게 한다. 누구나 한 번쯤은 참견할 수 있는 자신감을 주는 것이다. 전라도는 찾아오는 이들을 쉽게 공동체에 끼워주고, 일단 들어오면 기회와 역할을 똑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인정을 베푼다.

전남대 화학교육과 손창국 교수는 "전라도는 외지인들에게 번치않는 모성(母性)과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요소가 많은 곳"이라며 "외지인들에게 항상 탐구의 대상인 전라도의 콘텐츠를 연구하고 가계 내일의 전라도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3200만 민족 대이동 시작

고속도로 정체...서울~광주 7시간30분

포근한 날씨 속에 민족 대이동이 시작됐다. 이번 설(3일)은 최장 9일간의 '황금 연휴'로 연결돼 어느 명절보다 넉넉한 귀성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6일까지 전국적으로 총 3173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설보다 귀성객이 3.2% 증가한 것으로, 민족 대이동에 따른 귀성·귀경길의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하지만 구제역의 영향으로 광주·전남을 찾는 귀성객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측됐다. 전남도와 각 지자체는 구제역 방지를 위해 방역 활동과 함께 출항민들의 귀성 자제를 호소하고 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일 광주고속

터미널과 광주역, 광주공항 등에는 선물꾸러미를 손에 든 가족 단위 귀성객들로 북적거리기 시작했다. 또 이날 호남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등에는 45만대의 귀성 차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극심한 정체 현상을 빚었다.

한국도로공사 호남본부 측은 이번 연휴 동안 호남권 고속도로를 통해 총 300만대의 차량이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귀성길은 지난해 설(250만대)보다 차량이 20% 가량 늘어나면

서 2일 오전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측됐다. 귀경길은 4일 오후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인다.

고속도로를 이용한 귀성 시간(승용차 기준)은 서울~광주가 최대 7시간3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귀경은 긴 연휴로 인해 교통량이 분산되면서 광주~서울이 5시간50분 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설 연휴 동안 호남지역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2~6일 호남지역은 낮 최고기온이 영상권을 유지하고, 아침 최저기온도 예년(영하 10~0도)보다 높은 영하 3~0도 분포를 보이겠다. /최경희기자 choice@

"자식들 보러 서울 갑니다"

민족의 명절 설을 이틀 앞둔 1일, 광주시 서구 광천동 버스종합터미널 대합실에서 아들과 딸, 그리고 손자, 손녀가 살고 있는 성남과 안산 등지로 떠나려는 노부모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불황과 한파, 구제역과 조류독감 등이 덮쳐 가슴 한구석은 무겁지만, 고향 떠난 자식들을 만난다는 설렘에 부모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피어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설 명절 즐겁게 보내십시오

光州日報 임직원일동

연휴날씨	2(수)	3(목)	4(금)	5(토)	6(일)
맑음	구름 많음	구름 많음	구름 많음	구름 많음	구름 많음
-2/9℃	-2/8℃	-1/8℃	0/7℃	1/9℃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특집 지면 안내

전라도가 좋다.....12·13면	설 연휴 생활정보.....19면
전라도의진수진도...14·15면	볼 만 한 영화.....20면
한옥마을의 하룻밤.....16면	설 연휴 TV.....21~23면
전라도 숨은 별미.....17면	스포츠는 계속된다.....26면

설 연휴 3~6일 신문 쉽니다

雪花秀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CREAM
자음생크림

인삼의 뿌리부터 열매까지 귀하게 담아 피부 재생의 격을 높이다

지난 2천년 동안 사람들은 인삼의 뿌리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설화수 한방과학은 인삼 뿌리의 효능에 진생베리의 성분을 더하면 획기적인 피부 재생력이 완성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인삼 뿌리의 사포닌과 진생베리 성분이 겉과 속에 활력을 더해 재생효과를 최고조로 끌어올려주는 설화수 자음생크림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재생의 진실
설화수 자음생크림

Sulwhasoo

AMOREPACIFIC CORPORATION 22nd World Congress of Dermatology Seoul 2011 PLATINUM SPONSOR

(주)아모레퍼시픽은 제22차 세계피부과학회 공식 후원사로 활동합니다.